

# ‘종교와 영화’론 연구의 서장을 엿다

《유한의 시간을 비추는 무한의 스크린-종교와 영화의 세계》

서평자 신광철(인문콘텐츠학회장, 한신대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영화가 끝나고 온갖 이미지들이 벌이는 이야기와 연행의 몸짓들이 사라진 뒤에는 불이 꺼지고 영화관이라는 동굴을 채우던 어둠은 사라진다. 어둠이 사라진 뒤에는 오직 아무 것도 없는 스크린만이 남는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공간을 성스럽게 구별된 장소로 만들고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원과 무한으로 도약하는 의례적 몸짓이 한창이지만, 그 모든 유한한 이미지, 이야기, 몸짓들은 종교를 구성하는 표면에 지나지 않는다.

— ‘에필로그’에서



종교와 영화의 세계  
박종천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박종천 | 2020년 8월 31일 발행 | 448쪽

### 프롤로그

1부 종교가 영상을 만났을 때: 종교 이미지와 영상 문화

1장. 종교 문화와 영화 문법의 삼간(三間)

2장. 종교와 영화의 관계와 종교 영화의 유형

3장. 예수 영화: 예수의 재현인가, 그리스도의 재현인가

4장. 신종교 영화: 익숙한 거울인가, 낯선 거울인가

2부 종교 영화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

5장. 실낙원의 트라우마와 제의적 영화 체험

6장. 원죄의 고통을 윤회하는 인생의 사계

7장. 세속적 재미로 치환되는 구도적 의미

3부 종교 영화의 넓이와 깊이 그리고 향기

8장. 죽음과 생명의 종교 영화

9장. 화해와 불화의 영화적 변주곡

10장. 신비주의의 영화적 상상력

에필로그: 유한에서 무한으로, 시간에서 스크린으로

참고문헌

1990년대 후반 대학에서의 교양 강좌의 하나로 ‘종교와 영화’의 설강을 제안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종교와 영화’는 한국 학계에서 생경한 분야였다. 교양과정위원회에 참석해 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설명 자료 준비를 위해 미국에서의 상황을 조사하면서 놀라움을 느꼈다.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종교와 영화’(Religion and Film) 강좌가 개설되어 종교학적 사유의 확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고, 다수의 대학에서 강의계획서와 강의 요목을 참조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종교와 영화’ 관련 연구서들이 상당수 출간되어 있었고, 다양한 주제의 논문 목록도 확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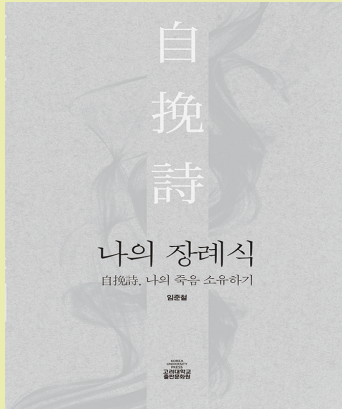
지금은 한국의 대학에서도 교양 강좌로 ‘종교와 영화’가 적지 않게 개설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논문 발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및 연구 주제로서 ‘종교와 영화’의 위상이 어느 정도 확보된 셈이다. 이러한 위상 확보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자에 의한 ‘종교와 영화’ 연구서가 존재하지 않아 아쉬웠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첫 연구서가 출간되었다. 역작의 주인공인 《유한의 시간을 비추는 무한의 스크린-종교와 영화의 세계》의 저자 박종천 교수는 종교학자이며, 유교 사상 및 의례 전공자이다.

저자의 학문적 관심사는 비단 종교학과 종교사상 및 의례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일찍부터 종교학의 문화비평적 역할에 대하여 주목해 왔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비중 있는 연구 논문들을 발표해 왔다.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저자의 연구 프레임은 ‘의례적 몸짓과 그 의미’, 그리고 ‘이야기와 이미지의 만남’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프레임은 이번에 출간된 《유한의 시간을 비추는 무한의 스크린-종교와 영화의 세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책은 종교학과 영화학의 융합적 관점에서 한국의 종교 영화를 중심으로 종교와 영화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저자가 ‘종교와 영화’라는 주제를 해명하는 시각은 독특하고 독보적이다. 종교 문화와 영화 문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범주로서 시간, 공간, 인간의 삼간(三間)을 제시한 것이다. ‘삼간론’(三間論)은 ‘종교’와 ‘영화’를 구조적으로 연관 짓는 방법론이자 분석틀로서 기능한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 프레임의 키워드인 이야기, 이미지, 몸짓은 삼간론을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삼간론에 대한 이해는 이 책에 대한 독법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유한의 시간을 비추는 무한의 스크린-종교와 영화의 세계》는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종교와 영화’의 이론을 모색하는 한편, 종교 영화의 역사와 현상을 정리하고 있다. 종교 문화와 영화 문법의 관계를 삼간의 차원에서 교차로 검토하는 한편, 종교와 영화의 관계와 종교 영화의 유형 등을 분류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또, 세계영화사에서 신앙고백적 관점과 사회비평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나의 장례식 | 임준철



정신학과 영화 | 김승현 외

적 관점을 중심으로 종교 영화의 주류를 형성해 온 예수 영화를 ‘재현’과 ‘재전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한편, 기성종교와는 다른 형상화 양상을 선보이는 신종교 영화의 특징을 설명한다. 저자는 1부에서 종교 영화 연구와 예수 영화 연구의 동향을 상당히 충실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 연구 성과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의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제시한 삼간론을 구체적인 영화 분석을 통해 실증해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몽타주를 중심으로 하는 시간, 미장센을 핵심으로 하는 공간, 서레이드와 캐릭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 등 영화 속 삼간에 대한 분석을 영화 <박하사탕>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리고 ‘서유기’ 콘텐츠에 적용함으로써 삼간론의 실천적 정초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영화학 이론뿐만 아니라 엘리야데를 비롯한 종교학자들과 빅터 터너(Victor Turner)를 비롯한 인류학자들의 신화 이론과 의례 이론 등을 폭넓게 활용하면서 영화 체험의 의례적인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3부에서는 주제 연구를 통해 1부의 이론 정립과 2부의 이론 적용의 성과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죽음과 생명, 고통과 소외, 구원과 사랑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종교 영화들을 비교적 관점에서 통찰해 냄으로써 종교 영화가 지닌 넓이와 깊이와 향기를 다각도로 보여 주고 있다.

저자는 이론의 정립, 이론의 적용, 주제의 확장의 여정을 갈무리하면서 “유한에서 무한으로, 시간에서 스크린으로”라는 부제를 단 에필로그를 통해 ‘종교와 영화론’의 위상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종교와 영화가 모두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무한의 초월로 도약한다는 점에서 상통함을 논한다. 또한, 종교와 영화는 유한의 시간을 낳는 자궁이자 그 이야기가 마감되는 무덤이며, 종교와 영화의 핵심은 유한의 시간을 비추는 무한의 스크린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종교와 영화론’을 마무리 짓는다. 저자는 이러한 결론적 논의를 통해 ‘종교와 영화’ 연구의 서장을 훌륭하게 확보해 준다. 이 점을 《유한의 시간을 비추는 무한의 스크린-종교와 영화의 세계》의 가장 큰 미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책과 가까이, 더 넓은 세상

KOREA  
UNIVERSITY  
PRESS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